

카사노바 그리고 복권

누구나 한 번쯤 사보았을 복권. 오늘날 복권 한 장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라면, 과거에는 신분 상승의 도구로, 또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역사 속 복권, 그리고 복권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도서 (사물의 민낯)(김지룡·갈릴레오 SNC 지음, 애플북스 펴냄)

재원 조달을 위해 탄생한 복권

복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복권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파라오의 유물에서 복권과 비슷한 방식의 게임이 시행된 흔적이 발견된 것. 다만 그 목적과 방식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사용 목적이 알려진 건 진나라와 로마의 복권이다. 중국 진나라에서는 '키노(Keno)'라는 복권 게임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고, 복권으로 마련된 기금은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로 사용되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복권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도시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연회에서 복권 이벤트를 열었는데 참석한 손님들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모은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네로 황제가 땅, 노예, 선박 등을 상품으로 건 복권을 강제로 팔아 건설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이처럼 복권은 재원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중세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좀 더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사행성은 점점 늘어갔다. 이탈리아에서는 상금으로 '도시 전체'가 걸린 적도 있었다고. 복권이 도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한때 각 나라가 복권을 불법화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권을 발행하게 됐다. 사행성이 있다고는 해도 복권을 통한 재원 조달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복권 기금으로 마련했다. 또 콜롬비아, 뉴저지, 예일, 하버드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도 복권 기금으로 설립했을 만큼 복권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권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카사노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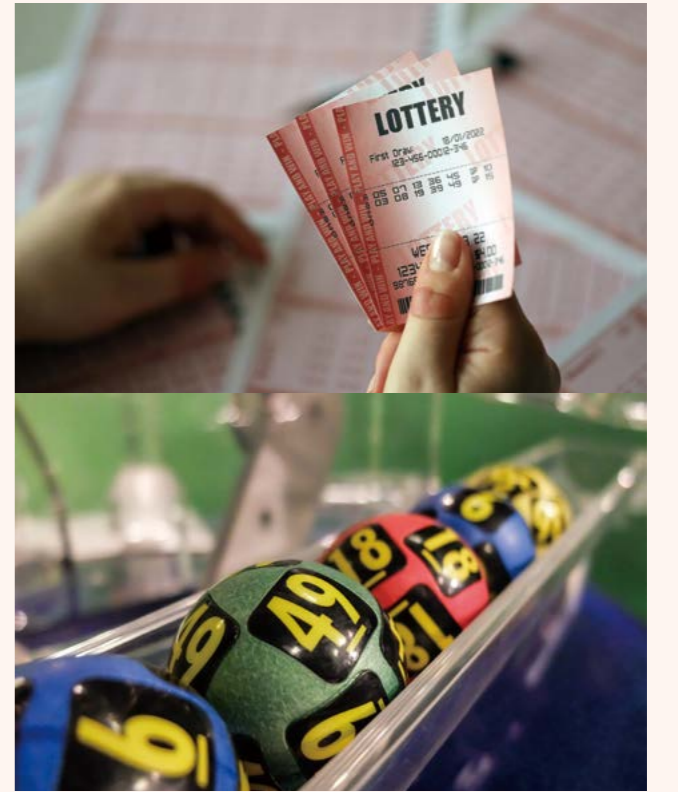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 그가 엄청난 여성 편력가라는 사실 외에 프랑스 복권 탄생의 주역이라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베네치아 공화국 예술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카사노바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17세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우수했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성직에 입문했지만 방탕한 사생활로 교회에서 쫓겨났고, 이후 장교로 군에 입대했으나 예술가 기질의 카사노바와는 잘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길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한 남성을 구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베네치아의 귀족 마테오 조반니 브라가딘(Matteo Giovanni Bragadin)이었다. 생명의 은인인 카사노바를 양자로 삼은 브라가딘 덕에 귀족 세계에 발을 들인 그는 특유의 언변과 지식으로 사교계

스타가 되었지만, 방탕함이 또 문제였다. 여성 12명과 연애한 전력 때문에 유럽 최고의 감옥인 피온비 감옥에 수감된 것. 1년 만에 감옥 탈출에 성공하며 탈옥범 신세가 된 그는 베네치아 시절 알게 된 프랑스 외교관 베르니스를 찾아갔는데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된다. 철옹성 같은 피온비 감옥을 탈옥한 희대의 탈주범, 여성 12명과 연애한 희대의 바람둥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교계에 입성해 단숨에 스타가 된 그는 1757년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를 알현하기에 이른다. 당시 루이 15세는 프랑스 재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7년 전쟁에 휘말려 재정이 매우 궁핍해졌기 때문. 이에 카사노바는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복권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루이 15세는 복권을 발행해 손쉽게 재정 적자를 타개할 수 있었고, 이로써 왕의 신임을 얻게 된 카사노바는 프랑스 외무부 특사로 임명된다. 끊임없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복권을 통해 실현됐다는 점, 또 프랑스 복권의 시작이 카사노바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은 복권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복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1947년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이다. 런던올림픽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복권으로 한 장에 100원, 1등 상금은 100만 원이었다. 이후 1956년 2월, 정부가 전쟁 복구비 마련을 위해 애국복권을 발행하면서 '복권'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1969년 9월에 등장한 주택복권은 정기발행 복권 시대를



열며 37년간 판매됐다. 당시 서울의 집값이 약 200만 원이었던 시절, 1등 당첨금이 300만 원으로 지금의 로또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1990년 9월부터 3년간 발행된 엑스포복권은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첫 즉석복권이었다. 이후 즉석복권의 인기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복권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다 2004년, 복권 발행 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도 3종(즉석복권)과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자복권 7종이 있다. 대표적인 복권인 로또는 숫자 45개 중 6개를 맞히면 1등인데, 그 확률이 약 814만분의 1이라고 한다. 벼락 맞을 확률(600만분의 1)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복권을 찾는 이가 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명 중 8명이 로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복권 판매액은 전년에 비해 7.6% 증가해 6조 4,292억 원을 기록했다. 한동안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권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권에 당첨되면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복권의 폐해와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표 전까지 잠시나마 당첨에 대한 기대가 주는 행복을 만끽하며, 소액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복권. 참고로 복권기금은 사회 곳곳에 투명하게 쓰이는 만큼 낙첨했다고 실망하기보다는 기부의 한 방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